

# 사기와 도움 ... 16세 소년의 첫 차 취득기

자동차 딜러에게 중고차 사기를 당해 돈은 물론 차까지 몽땅 잃은 소년에게 또 다른 딜러가 도움을 손길을 건넸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조너선 프레드릭스(16)는 패스트푸드점에서 1년 동안 일하며 1만 달러를 모았다. 그는 만 16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첫 차를 사기 위해 할아버지와 함께 중고차 매장에 들렀다. 하지만 소년은 마음에 드는 차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한 딜러가 "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중고차가 있는데 한번 보고 생각해 보라." 고 제안했다. 결국 프레드릭스는 그 딜러에게 9,800달러의 현찰을 주고 첫 차를 구매했다. 하지만 프레드릭스가 구입한 차는 다른 딜러의 차였다. 심지어 프레드릭스에게 자동차를



▲ 조너선 프레드릭스(오른쪽)과 프랭크 모터 켄트 모터 컴퍼니 관계자(왼쪽). 사진=Frank Kent Motor Company

판 딜러는 실제 주인에게 계약금만 건넨 후 잔금을 모두 가로챘다. 결국 프레드릭스는 구매한 자동차를 5개월 만에 원래 소유주인 딜러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프레드릭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또 다른 중고차 딜러였다. 프랭크 켄트 모터컴퍼니라는 자동차 판매점 측이 프레드릭스에게 차를 선물한 것이다. 프레드릭스는 매장으로 초대돼 감동적인 첫 차를 선물 받았다. 그는 자동차 열쇠를 넘겨 받고 딜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프랭크 켄트 모터컴퍼니 관계자는 "방송에서 소식을 접했을 때 소년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서 "모든 자동차 딜러가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 여객기 '나 홀로' 승객 화제



▲ 사진=틱톡(케이 포사이스)

여객기 승객이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국의 한 남성은 최근 이런 경험을 했으며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영국 더비셔주에 사는 케이 포사이스는 지난 9일 런던을 출발해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향하는 영국항공 여객기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영상에서 "승무원이 내게 '이번 비행기의 승객은 당신뿐이라고' 말해줬다." 고 전했다. 소형 비행기를 탑승한 것이 아니라 3, 4월 좌석이 늘어난 여객기에 승객으로 탄 사람은 그뿐이었다는 것이다.

영상에는 텅 빈 기내 모습이 담겼다. 포사이스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 4열 좌석에 팔걸이를 모두 올리고 쿠션을 나란히 세워 간이침대를 만들었다. 기내식도 오직 그만을 위해 준비됐다. 그는 "개수 제한도 없어 뷔페 같았다." 면서 "비행시간은 8시간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비행 중 가장 편안했다." 고 밝혔다.

이날 비행은 승무원들에게도 편안한 경험이 었다. 실제 그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는 한 남성 승무원이 빈자리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도 담겼다.

포사이스는 "왜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았느냐?" 는 한 팔로워의 질문에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서 "나중에 보니 일거리가 거의 없던 여성 객실 승무원들이 일등석에 누워 쉬고 있었다." 고 답했다. 그는 "과악된 승무원만 8명이었다." 고 덧붙였다.

# 우리 마을에서 살려면 맹장수술부터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선 반드시 맹장 수술부터 해야 하는 마을이 있다. 지구촌 최남단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칠레의 비아 라스에스트레야스 마을이다.

비아 라스에스트레야스에 살기 위해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때 의무적으로 맹장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황당해 보이는 조건은 마을의 지리 환경적 탓에 만들어졌다. 남극과 남미대륙 사이 사우스셰틀랜드 제도에 위치해 있는 비아 라스에스트레야스는 사실상 남극 마을이다. 마을에는 작은 학교와 은행, 심지어 우체국까지 설치돼 있지만 맹장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단 1명도 없다. 급성 맹장질환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선 손을 쓸 수 없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1,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비행기를 띄우지 않으면 환자 이송이 불가능하다. 악천후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환자는 꼼짝 없이 마을에 갇히게 된다.



▲ 비아 라스에스트레야스 마을 전경. 사진=coolantartica.com

이 마을에서는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다. 혹시 모를 유행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마을 관계자는 "사실은 입주를 원하는 당사자를 위한 조건" 이라고 말했다.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이 마을에는 남극기지 대원의 가족 등이 주로 살고, 남극 오지 생활을 위해 입주한 주민도 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대륙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어 인구수는 계절에 따라 80~150여 명으로 유동적이다. 겨울에는 인구가 줄고, 여름에는 인구가 늘어난다.



#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Loving Dentistry You Can Trust

## Special 1

###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 3D CT

## Special 2

###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탑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